영국이 EU를 떠난 것은 잘못이었다

여론조사 국민 56% '실수' 답변
브렉시트로 英 경제·정치 잠식
올 성장률 유일한 마이너스 예상
정치권 아무런 국가문제 해결 못해

브렉시트를 단행해 유럽연합(EU)과 결별한 지 3년이 됐지만 영국은 이렇다 할 기념식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경제 전망도 어둡고 사회문제도 내부에 첩첩이 쌓여 있어 떠들썩한 팡파르를 울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영국의 현재 경제 사정은 다른 유럽 주변국보다 더 좋지 않다. 이처럼 영국이 EU 주변국보다 경제위기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아닌 브렉시트가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아넌드 메넌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우리 경제가 취약해진 원인 중 하나가 브렉시트"라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브렉시트로 모든 것이 정치적 문제가 됐다. 이젠 경제 논의마저 정치를 통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0.6%)로 예상했다. IMF는 온갖 경제 제재를 두들겨 맞은 러시아마저 플러스(0.3%) 성장을 예상했다.

브렉시트가 이런 부진의 일부 요인이라고 IMF는 분석한다. 영국에서 최근 노동력 공급 상황이 빠듯한 것도 EU를 탈퇴한 이후 해외 노동력 유입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NYT는 브렉시트의 불똥으로 식당 웨이터부터 논밭의 농부까지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넌 교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된) 2016년 이후 정부 행정력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며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정부 층위에서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도 브렉시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영국이 자랑하던 공공 보건의료체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병원이 환자로 넘쳐나고, 앰뷸런스를 부르려면 수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일상이 됐다.

1일에는 10년 만의 최대 규모 파업이 시작된다. 교사, 철도 노동자, 공무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비우고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NYT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도 브렉시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이후 집권 보수당은 계파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진 탓에 기민한 정책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도시 계획부터 EU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 할 일이 태산이지만 결과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며 영국인들 사이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환멸도 커지고 있다. 2016년 국민투표에선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지만, 작년 11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브렉시트는 '실수'였다고 응답했다.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여론은 32%에 그쳤다.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을 전체 629개 선거구별로 조사한 결과, "영국이 EU를 떠난 것은 잘못이었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가 우세한 선거구가 무려 626곳에 달했다. 그렇지 않은 선거구는 단 3곳, 이민자 문제가 현안인 동부 농촌뿐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IMF의 우울한 경제전망이 'EU 잔류파'나 '브렉시트 찬성파'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듯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재가입 논의를 감히 먼저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직 찾기 어렵다.

브렉시트 단행 당시처럼 거센 논란이 재현될 것이 뻔한데, 그 부담을 지고 나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도 당장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야당 노동당조차 '브렉시트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미는 데 그치고 있다.

NYT는 "브렉시트 논란이 너무 거셌던 탓에 리시 수낵 총리로서는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이 됐다"고 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2차 총파업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2차 시위가 진행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리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부근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주 러 용병 "우리는 총알받이였다"

"시신 쌓이면 더 많은 죄수 충원"
바흐무트 전선 잔혹상 털어놔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더 많은 시신이 쌓이면 더 많은 죄수가 충원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에서 탈주해 노르웨이로 달아난 전직 용병 안드레이 메드베데프(26)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느렸던 병사의 수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메드베데프는 군 복무 경력이 있었던 까닭에 작년 6월 용병계약을 맺은 직후 최격전지 중 하나인 바흐무트에 투입돼 현장 지휘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처음 자신 아래에 배치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죄수들을 전쟁에 동원하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와그너그룹 대표가 러시아 각지 교정시설에서 죄수들을 용병으로 영입, 전선에 대거 투입한 결과다.

메드베데프는 "전사자가 나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종내에는 많은 사람이 내 지휘 아래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충원된 병력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작전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전장에 내몰려 무의미하게 죽어갔다고 메드베데프는 털어놨다.

그는 "실질적으로 전술 따위는 없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에는 그저 적의 위치 정도만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까닭에 와그너그룹 용병들은 총알받이로 소모돼 갔다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6일째 되던 날 그런 모습을 보고 더는 전선에 나서고 싶지 않아졌다고 메드베데프는 말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한·미·EU 등 폭력종식 촉구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여러 국가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발발 2년을 맞아 폭력 종식과 민주적 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군부 정권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고 포괄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무기·장비의 판매 및 이전 중단, 미얀마 국민의 긴급한 인도적 요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669호가 아세안 및 유엔 미얀마 특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얀마 내 모든 당사자가 이들 특사와 협업해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한 사실을 상기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 미국, 영국, 스위스,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등 20여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 명의로 발표됐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와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르손서 구호식량 배급받는 우크라 소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인근에서 한 소녀가 자원봉사자에게 배급받은 구호식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캄보디아, 무에타이 원조 논쟁

동남아시안게임 명칭 변경
태국 "선수 못 보내" 보이콧

태국의 전통 무술로 알려진 무에타이를 놓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5월 열리는 제32회 동남아시안(SEA)게임 주최국인 캄보디아가 지난달 무에타이로 알려진 종목명을 자국 용어인 '쿤 크메르'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태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지는 논란에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오는 6일 무에타이의 날을 앞두고 전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에타이는 오랜 세월 태국 문화의 일부였고, 우리의 자랑"이라며 "이를 두고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남이 뭐라고 말하든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논쟁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 국민의 논쟁에 대해 "무의미하다. 우리는 뭐가 뭔지 안다"고 말했다.

이날 쁘라윳 총리는 무에타이 선수들과 함께 발차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